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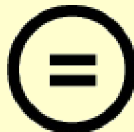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표현 능력 향상을 위한
부사어 교육 방안 연구



2013년 8월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김 예 슬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표현 능력 향상을 위한
부사어 교육 방안 연구

지도교수 채 영 희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8월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김 예 슬

김예슬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8월 23일



주 심 문학박사 조 미 정 (인)

위 원 문학박사 권 성 미 (인)

위 원 문학박사 채 영 희 (인)

목 차

* Abstract	V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선행 연구	5
3. 연구 대상과 방법	7
II. 학교 문법에서의 부사어 관련 내용 분석	20
1. 교육과정에서의 부사어 교육 관련 내용 분석	20
2. 중학교 국어교과서에서의 부사어 교육 내용 분석	23
가. 두산동아 국어(이)교과서의 부사어 교육 내용 분석	23
나. 대교 국어(왕)교과서의 부사어 교육 내용 분석	30
III. 부사어 교육 방안	36
1. 부사어 수업 모형과 교육 방안	36
가. 부사어 수업 모형	36
나. 부사어 교육 방안	42
2. 부사어 지도 방안	46
가. 교수·학습지도안	46
나. 수업의 실제	48

IV. 결론	55
--------------	----

* 참고문헌	58
--------------	----

* 부록	60
------------	----



<표 목차>

<표1> 부사어 교육 대상 범위	15
<표2> 학습자의 순수부사 사용어휘와 어휘 양	16
<표3> 학습자의 부사절 사용어휘와 어휘 양	16
<표4> 2007개정교육과정 국어과교육과정 8학년 부사어 관련 내용	21
<표5> 2007개정교육과정 국어과교육과정 9학년 부사어 관련 내용	21
<표6> 국어과 [중1-3]학년군 성취기준	22
<표7> 두산동아, 2013 『국어(이)』, 2-2, 2(2), 부사어정리	24
<표8> 두산동아, 2013 『국어(이)』, 2-2, 2(2), 활동1	24
<표9> 두산동아, 2013 『국어(이)』, 2-2, 2(2), 지도내용1	25
<표10> 두산동아, 2013 『국어(이)』, 2-2, 2(2), 활동2	26
<표11> 두산동아, 2013 『국어(이)』, 2-2, 2(2), 지도내용2	26
<표12> 두산동아, 2013 『국어(이)』, 2-2, 2(2), 활동3	27
<표13> 두산동아, 2013 『국어(이)』, 2-2, 2(2), 지도내용3	27
<표14> 두산동아, 2013 『국어(이)』, 2-2, 2(2), 활동4	29
<표15> 두산동아, 2013 『국어(이)』, 2-2, 2(2), 지도내용4	29
<표16> 대교, 2013 『국어(왕)』, 3-2, 3(1), 부사어정리	31
<표17> 대교, 2013 『국어(왕)』, 3-2, 3(1), 부사어 학습 활동	31
<표18> 대교, 2013 『국어(왕)』, 3-2, 3(1), 부사어 지도 내용	32
<표19> 대교, 2013 『국어(왕)』, 3-2, 3(1), 부사절 지도 내용	32
<표20> 대교, 2013 『국어(왕)』, 3-2, 3(1), 이어진 문장	33
<표21> Barry K. Beyer의 사회과 탐구 과정	37
<표22> 박영목 외(1995)의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38
<표23> 개념 습득형 탐구 학습 절차	39

<표24> 실험형 탐구 학습 절차	40
<표25> 개방형 탐구 학습 절차	41
<표26> 부사어 탐구 학습 모형	43
<표27> 부사어 어휘력 향상을 위한 과제 예시	46
<표28> 부사어 교수·학습 지도안	48
<표29> 부사어 문제 학습단계 예시	49
<표30> 부사어 자료 분석단계 예시1	50
<표31> 부사어 자료 분석단계 예시2	51
<표32> 부사어 자료 분석 단계 예시3	52
<표33> 부사어 일반화 단계 예시	53



**A Study on the Teaching Method of Adverbial
for Expression Ability Improvement.**

Kim Ye Seul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an educational plan of adverbs in which learners can improve their expression ability. Modern society requires creative and efficient communication ability. The communication ability is considered valuable because it shows individual's marked personality and quality. Therefore, it is crucial to develop sentence constructing ability and expression ability to communicate in a creative and efficient way. Adverbs contribute to improving these abilities. The role of adverbs is to help understand sentences clearly by offering meaningful information such as place, time, object, reason and etc, They help get rid of boredom and the feeling of monotonous adding vividness and fun to a sentence. Also, they are effectively used to deliver one's thought and feeling. Therefore, adverbs play significant roles in the aspect of meaning in constructing a sentence. This research suggested the educational plan of adverbs which focused on the functions of adverbs and contributed to sentence constructing ability and expression ability. It was difficult to put all of the adverbs in the educational scope because of their diverse kinds and forms. Therefore, the educational scope was restricted

to some of adverbs which will help improve the learners' expression ability and the educational plan was suggested based on these. Adverbs of manner and adverbs of symbol are considered to help improve the learners' expression ability. This is because they not only have abundant vocabulary but also modify sentences without distortion of the meaning. Also, they add vividness and richness to sentences. Adverbial clauses could be included in the educational scope, either. They put freshness in sentences. Using adverbial clauses instead of some plain adverbs can help add vividness to sentences and effectively deliver one's thought, feelings, and opinion. Therefore, the educational scope of adverbs in this study was adverbs of manner, adverbs of symbol, and adverbial clauses.

The followings are how this study was progressed.

In chapter I, the necessity, purpose, subject, method, and preceding studies of the study were suggested.

In chapter II, the contents about an adverb in the current Korean education were examined through analyzing the map in the textbook and the revised curriculums of 2007 and 2009. In 2013, 2009 revised curriculum has been applied to middle school first graders, 2007's to middle school second and third graders. Both curriculums were examined in the study. Also, the contents about adverbs in the two of the government-authorized textbooks were examined and analyzed. Finally, the problems of the current adverb education was discovered.

In chapter III, th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of adverbs were suggested. A learner-oriented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was suggested through research and study method. The method considered the learner's interest and autonomous stud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e aspect that the problems of adverb education was discovered through analyzing the educational curriculum of

middle school and it suggested the learner-oriented educational method of adverb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현대사회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전 세계를 잇는 통신망으로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정보들로 인해 의사소통의 효과성과 창의성이 중요해졌다.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의사소통 능력이란 단순히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즉,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효율적이게 전달하고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많은 정보들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간략하고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많은 의견들 중에서 자신의 의견을 풍부하고 세련되게 표현해내어 다른 사람들의 호기심을 이끌어내고 공감을 얻어내기 위함이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도구인 동시에 자신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언어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성격, 사상 등을 통해 그 사람의 가치와 개성을 드러낸다.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언어를 사용하면 그 사람의 가치 또한 높아진다.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의 가치와 개성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개인의 가치와 개성이 곧 개인의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어를 참신하고 고급스럽게 사용하는 것은 그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언어 사용은 국어를 아름답게 사용하는 태도를 길러주고 국어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한다.

2009 개정교육과정 국어 교과목의 목표에서도 위와 같은 언어적 능력을 함

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09개정 교육과정 ‘국어’교과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한국인의 삶이 배어 있는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고, 국어를 창의적으로 사용하여 국어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며, 올바른 국어 생활을 통해 건실한 인격을 형성하여 건전한 국민 정서와 미래 지향적 공동체 이식을 함양하는 과목이다.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타인이 잘 이해할 수 있고 최대한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달하고 설득하는 것을 말한다. 생각과 감정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는 상세한 부연설명과 묘사, 논리적인 연결이 필요하다.

또, 국어교과의 정의에서 올바른 국어 생활은 건실한 인격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언어생활은 인격형성에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게 될 것이며, 창의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창의적인 사고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창의적인 인재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요구하는 인재상이며 위의 정의에서도 국어의 창의적인 사용을 제시하고 있다. 언어를 창의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다채롭게 표현함을 말한다. 언어를 다채롭게 표현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단어를 습득하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문장을 풍부하게 만들 줄 알아야 한다. 문장은 문장성분 중 수식성분의 꾸밈을 통해 풍부해진다. 문장을 구성하는 문장 성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은 주성분과 부속성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성분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로서 문장을 구성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성분들을 말한다. 반면 부속성분은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로 문장을 구성함에 있어 필수적으

로 요구되는 성분들이 아니다. 그 중 관형어와 부사어가 수식성분에 해당한다. 이 성분들은 문장에서 다른 성분들을 수식하여 내용을 풍부하게 만든다. 내용을 부연설명하고 묘사하는 것 또한 관형어와 부사어가 하는 역할이다. 하지만 관형어와 부사어는 차이점이 있다. 관형어는 부사어에 비해 그 형태와 수식하는 성분이 한정되어 있으며 자리 옮김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 반면 부사어는 그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며 자리 옮김 또한 자유롭다. 그래서 문장을 다양하게 수식하며 언어를 창의적이고 세련되게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의미를 더하거나 상세하게 나타냄으로서 내용을 정확하고 효과적이게 표현해낼 수 있다. 하지만 국어 문법 연구에서 부사어를 임의적인 성분으로 한정짓고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그래서 학교 문법에서의 부사어 교육 또한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소홀히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부사어 교육의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다. 요즘 학습자들의 언어표현은 점점 더 단순화되어 가고 있다. 통신기기들의 발전으로 빠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초도 안 되어 오고가는 메시지들로 인해 간단하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언어 사용이 늘어나면서 문장은 간략해지고 내용은 단순해졌다. 이에 내용을 풍부하게 만드는 수식어의 사용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에 부사어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학습자들의 문장 구성 능력과 표현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부사어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사어는 그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다. 그래서 부사어 전체를 교육대상으로 삼기에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이에 학습자의 표현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만한 부사어를 한정하여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손남익(1995)에서 논의된 부사 8,100여개를 부사의 분류에 따른 비율로 살펴보면 시간부사는 2.9%, 장소부사는 0.5%, 양태부사는 39.9%, 정도부사는 0.6%,이다. 상징부사는 의태어가 약 37.3%, 의성어가 17.2%로 부사전체에서 약 54.5%를 차지한다.¹⁾ 정도부사는 그 숫자가 50여개 정도

로 많지 않다. 그러나 행동이나 사물의 정도를 나타내기에 정도부사의 어휘량은 부족하지 않다.²⁾ 그러나 정도부사는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그 어휘량이 한정되어 있다. 또 그 특성상 행동이나 사물의 정도를 더해주거나 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장을 풍부하게 만드는 부사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도부사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고 여겨진다. 또한 시간 부사어와 장소 부사어는 문장 내에서 문맥의 흐름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간부사와 장소부사는 그 어휘량이 적다. 대신 시간명사와 장소명사에 조사가 붙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간·장소 부사어는 문장에서 생략하면 어색한 경우가 종종 있다. 문맥의 흐름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장소 부사어는 표현력과 연관성이 깊다고 할 수 없다. 반면 학습자의 표현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부사로 상징부사와 양태부사를 꼽을 수 있다. 이는 양태부사와 상징부사는 어휘량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 문장의 내용을 순수하게 수식하기 때문이다. 또한 양태부사와 상징부사는 생동감을 나타내주며 문장을 풍부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나 상징부사와 양태부사는 국어 부사 체계 내에서 많이 발달되어 있다. 이에 학습자들의 표현력 향상을 위해 양태부사와 상징부사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부사절은 문장의 진부한 표현을 참신하게 나타내준다. 상투적인 부사어 대신 부사절을 사용함으로써 생동감을 나타낼 수 있으며 사상이나 감정,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양태부사, 상징부사, 부사절을 교육범위로 삼는다. 부사어는 형태적 기준으로 분류하면 부사, 부사구, 부사절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부사와 부사절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 부사는 다시 의미적 기준

1) 손남익(1995)

2)

으로 분류하여 그 중 양태부사와 상징부사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부사어 교육 방안은 학습자들이 스스로 언어 현상을 탐구하여 이해할 수 있는 탐구학습방법을 활용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부사어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는 부사어 그 자체에 대한 연구와 부사어 교육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부사어에 대한 연구는 많은 반면 부사어 교육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먼저 부사어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선자(1983)는 문장 안에서의 부사어의 기능을 밝히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문장 안에서 부사어의 그 범위와 기능 및 공기관계를 살펴보았다. 부사어의 기능적, 분포적 특성을 살펴어 범위 설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부사어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그리고 부사어의 기능을 피수식어와의 공기관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김경훈(1996)은 부사어의 체계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하여 부사어의 전반적인 모습을 고찰하였다. 부사어와 문장 내의 수식성분과의 의미론적 관계를 살폈고,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 성분의 범위에 따라 부사어를 분류하였다. 부사어 연구가 수식이라는 개념에만 너무 얽매어 부사어와 관련한 현상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면서 부사어의 호응 현상을 살폈다. 또한 부사어들끼리 서로 공기함에 있어 어떤 제약을 보이는지에 대해 살폈다. 또한 텍스트언어학적 관점에서 부사어를 조명하였다. 부사어들 중에서 문장이라는 테두리 안에는 제대로 해명을 받을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적절한 해명을 위해서는 문장의 범위를 넘어선 텍스트라는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조망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남기심·고영근(1998)은 부사어를 주로 용언을 수식하는 문장성분이나, 관형어나 다른 부사어를 수식하기도 한다고 정의하였다. 부사어가 문장의 주성분이 아닌 부속 성분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부사어를 문장 속의 특정한 성분을 꾸미는 성분 부사어와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문장 부사어로 분류하였다. 이관규(2005)는 부사어를 다른 말을 수식하는 문장성분으로 정의하였다. 부사어가 관형어나 다른 부사어를 수식하고 문장이나 단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함을 이야기하였다. 이들 연구는 부사어를 문장 성분의 부속 성분으로 설명하였고, 부사어를 하위 구분하여 그 특성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었다.

다음은 부사어 교육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겠다.

이영신(1999)은 초등학교 학습자의 언어발달에 따른 부사어 발달을 살펴 보았다.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지도내용을 분석하여 초등학교 아동의 부사어 지도 현황을 살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교육과정과 교과서 구성상의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학습자들의 일기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학습자들의 부사어 발달 현황을 살펴보았다. 종적인 관찰법을 사용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높였다. 학습자들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부사어휘를 사용하여 문장 표현력을 향상시키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2학년은 문자 언어에 익숙해지면서 부사어 사용이 빠르게 발전하며 4학년은 추상적인 사고가 발달함에 따라 부사어 어휘가 다양해지고 있음을 밝혔다. 5학년은 합성어 및 파생어 형태의 부사어가 많이 발달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6학년의 부사어 발달이 5학년 때에 비해 큰 변화가 없음으로 5학년 때 부사어 발달이 완성된다고 보았다.

이민경(2007)은 부사어 교육의 연구를 위하여 교과서 내 부사어 단원의

구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하지만 개선방안의 검증단계에서 부정부사, 의문부사, 가정부사만 다루고 접속부사어나 부사격 조사, 부사절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었다. 특히 중, 고등학생들이 직접 쓴 글을 통해 부사절과 접속부사어, 부정부사어, 부사격 조사를 분석하고 학생들의 부사사용실태를 조사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연구자는 학생들의 올바른 부사사용을 위해 실제 예문을 사용한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교수·학습효과를 학습자들이 생산해 낸 글이 아니라 기말고사시험으로 분석한 점이 아쉬웠다.

기영학(2007)은 텍스트 언어학적 관점에서 텍스트 내에서 부사어가 갖는 기능과 텍스트성을 고찰하였다. 텍스트 상에서 부사어가 가지는 필수성 및 기능을 중심으로 기존의 문장 위주 국어 지식 교육이 가지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했다. 이 연구는 초등 국어 지식 교육을 그 대상으로 하여 초등학교 현장에서의 부사어 지도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텍스트를 통하여 부사어의 기능과 체계를 살폈다. 텍스트 단위에서 부사어는 텍스트를 생산하고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텍스트 단위에서 부사어의 지도 필요성과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3. 연구대상 및 방법

가. 연구 대상

부사어는 문장을 구성하는 문장 성분이다. 부사어는 수식성분으로서 용

언이나 체언,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하지만 문장을 구성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성분은 아니므로 부속성분에 해당한다. 이에 부사어는 학교문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수식기능을 가지고 있어 문장의 내용을 꾸며주는 문장성분이라는 이론적인 지식전달에 그쳐왔다. 하지만 부사어 교육은 단편적인 지식 전달에 그쳐서는 안 된다. 부사어는 문장을 풍부하고 만들고 내용을 한정하며, 생동감을 나타낸다. 또한 상투적인 어구 대신 사용할 수 있어 문장의 단조로움이나 진부함을 벗어던지게 한다. 또한 부사어 사용은 사상이나 감정, 의견을 전달할 때 효과적이며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가진 부사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면 표현력이 향상될 것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표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사어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육 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부사어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부사어가 문장내의 다른 성분을 수식하여 문장을 풍부하게 만든다. 하지만 부사어는 그 형태와 구조 및 의미 기능이 다양하며 수식 대상의 범위 또한 매우 넓다. 이에 표현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부사어부류를 교육대상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한 문장 안에서 부사어로 기능하는 성분은 의미적 관점, 통사적 관점, 형태적 관점으로 분류되어 왔다. 먼저 형태적 관점, 의미적 관점으로 부사어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표현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사어를 한정짓도록 하겠다. 부사어는 그 특성상 문장을 구성함에 있어 꼭 필요한 문장성분이 아니다. 따라서 부사어가 생략되어도 비문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형식화된 예시 문장과는 달리 텍스트에서는 부사어가 생략되면 비문이 되거나 어색한 문장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학습자들의 독서 감상문³⁾을 살펴보고 순수하게 문장을 수식하는 부사어만을 교육 대상으로 한정하겠다. 그리고 통사적 관점에서 부사어를 살펴보고 통

3) 부산 하남중학교 2학년(2012) 15명의 독서 감상문 참고

사적 분류에 따른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형태적 기준에 따라 부사어를 분류하면 부사, 부사구, 부사절로 구분 지을 수 있다. 부사는 또다시 형태적 기준에 따라 순수부사, 합성부사, 파생부사로 구분할 수 있다.

(1) 축제가 곧 시작될 것입니다.

(1)의 부사는 순수부사로서 원래부터 부사의 기능을 가진 단일형태의 부사이다.

아래와 같이 부사에 보조사가 결합되어도 부사어로 취급한다.

(2) 동생은 형과 싸우고도 밥을 잘만 먹었다.

합성부사는 순수부사끼리, 또는 다른 품사끼리 합성된 부사를 말한다.

(3) 그는 실수를 곧잘 했다.

<예시>

그 높은 꿈을 이루었을 때의 나를 상상하면 가끔 힘이 생겨 공부를 정말 즐겁게 할 때도 있다.

순수부사는 문장과 텍스트에서 이를 생략하여도 구조상, 의미상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파생부사는 명사, 용언 어간 등에 어미가 덧붙여 형성된 부사어이다.

(4) ㄱ. 마음껏 뛰어 놀았다.

ㄴ. 집을 깨끗이 청소했다.

ㄷ. 이번 기말고사 성적을 올리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ㄹ. 지하철역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있다.

봄이 되자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4ㄴ, ㄷ, ㄹ)의 부사어들은 용언어간에 파생접미사 ‘-이, -히, -리’가 첨가되어 형성된 부사어이다. (4ㅁ)의 부사어는 용언어간에 부사형 어미 ‘-게’가 결합되어 형성된 부사어이다.

<예시1>

ㄱ. 은지 고모는 은지랑 미스코리아 놀이도 맡겼 해주고 잘 알아준다.

ㄴ. 남자여자의 계급, 신분같은 게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구나라는 쓸쓸한 생각이 들기도 했던 소설이다.

ㄷ. 강에 갈 때 폭포에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다.

<예시1ㄱ, ㄴ>은 생략되어도 문장의 구조나 의미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시1ㄷ>의 밑줄 친 부사어가 생략되면 의미상 변화가 일어난다. 용언의 어간에 부사형 어미 ‘-게’가 결합되어 형성된 부사어는 텍스트에서 종종 생략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부사는 다른 부사의 수식을 받아 부사어로 쓰이기도 한다.

(5) 나는 그 부분을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다.

(5)의 밑줄 친 형태를 부사구라고 한다. 부사구는 합성부사와 다르다. 부사구들은 두 부사가 합쳐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앞의 부사가 뒤의 부사를 수식하여 강조하는 것일 뿐이다. 즉, 부사구는 순수 부사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부사구 또한 생략가능하다.

문장의 부사어 자리에 들어가는 ‘주어-서술어’의 형태를 부사절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부사어의 기능을 한다. 부사절을 만드는 방법으로는 파생부사에 의한 것, 용언의 활용에 의한 것, 의존명사에 의한 것이 있다.⁴⁾

파생 부사에 의한 부사절은 절을 이끄는 용언의 어간에 파생 접미사가 붙어서 형성된다.

(6) 비가 소리 없이 내렸다.

용언의 활용에 의한 부사절은 절을 이끄는 용언의 어간에 부사형 어미‘-게, -듯(이), -도록’이 붙어 형성된다.

(7) ㄱ. 땀이 비 오듯이 흘렀다.

ㄴ. 다리가 아프도록 그를 기다렸다.

의존명사에 의한 부사절은 관형절에 의존명사 ‘-듯(이), -체로, -대로, -척, -양’ 등이 붙어 형성된다.

(8) ㄱ. 그들은 싸운 체로 지냈다.

ㄴ. 철수는 모르는 척 고개를 저었다.

ㄷ. 나는 아는 대로 말했다.

<예시2>

ㄱ. 사람이 자식을 향한 사랑이나 동물이 자식을 향한 사랑은 동물과 사람 할 거 없이 모두 같다.

ㄴ. 나는 평소에 그냥 책 읽듯이 그 책을 읽어보았다.

4) 허웅(1989:274)참조. 특수토씨의 종류는 많지 않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ㄷ. 내가 처음에 이책을 읽었을 때는 아무런 감정 없이 단순히 책한권을 읽는다고 생각하였지만, 갈수록 눈물이 난다.

부사절은 생략하여도 구조상 비문이 되지도 않고 의미가 달라지지도 않는다. 즉, 부사절도 문장을 순수하게 꾸미는 부사어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사 중 순수부사와 용언어간에 파생접미사 ‘-이, -히, -리’가 첨가되어 형성된 부사어, 그리고 부사절을 표현능력 향상을 위한 부사어 교육 대상에 포함시킨다.

부사어는 의미 특성에 따라 크게 장소, 시간, 양태, 정도, 상징, 접속 부사로 분류할 수 있다.⁵⁾

장소 부사어는 동작이나 사건이 발생하는 위치, 공간을 나타내는 부사어이다.

(9) ㄱ. 축구공이 멀리 날아갔다.

ㄴ. 철수가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다.

(9ㄱ)의 ‘멀리’는 일반 부사인 데 반해 (9ㄴ)은 체언에 부사격 조사 ‘-에서’가 결합되어 형성된 장소 부사어이다. 예문에서는 (9ㄱ, ㄴ)의 부사어를 생략해도 문장의 구조나 의미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시3>

은지네 가족은 유학을 떠난 아빠 때문에 시골에 계신 할머니 택에 동생과
엄마랑 같이 내려갔다.

그러나 위의 학생 글에서 밑줄 친 <체언+부사격 조사 ‘-에’> 형태의 부

5) 김민수(1971)와 남기심·고영근(1985)의 부사어 하위분류를 참고하였다.

사어를 생략하면 올바른 문장이 되지 않는다. 이를 통하여 텍스트에서 <체인+부사격 조사‘-에’> 형태의 부사어를 생략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간 부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적 위치를 명시해준다.⁶⁾

(10) ㄱ. 버스가 방금 떠났다.

ㄴ. 철수는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었다.

(10ㄱ)은 일반 시간 부사어이고 (10ㄴ)은 체언에 부사격 조사 ‘-에’가 결합된 형태의 시간 부사어이다. 예문에서는 (10ㄱ, ㄴ)의 시간 부사어를 생략해도 문장의 구조나 의미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시4>

ㄱ. 조회시간에 담임선생님께서 책 두 권을 들고 말씀하셨다.

ㄴ. 처음에는 그냥 훑어보듯 읽었는데 어느새 이 책을 자세히 꼼꼼히 읽는 나 자신을 발견할수 있었다.

<예시4ㄱ>의 밑줄 친 부사어의 생략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시4ㄴ>의 밑줄 친 부사어를 생략하면 어색한 문장이 되어버린다. 이를 통하여 체언에 부사격 조사 ‘-에’가 결합된 형태의 부사어가 아닌 일반 부사도 텍스트에서 생략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양태 부사는 화자의 심리를 나타내는 부사어이다.

(11) 그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

6) 기영학(2007:54)참조

<예시5>

정작 당사자는 이걸 읽고싶은 마음도 없지만 다른 장르의 책을 중학생이 되고나서부터 사주지 않고 오직 공부에만 관련된 책만 인정해주시는 부모님덕에 반 강제적으로 생일선물에 이 책을 얻게 되었다.

정도 부사는 서술어의 상태나 정도를 높이거나 한정짓는 부사어이다.

(12) 그 아이는 매우 영리하다.

<예시6>

그 블로그에는 정말 좋은 교훈이나 시, 글 들이 많이 있었다.

상징 부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와 모양을 흉내 낸 의성부사와 의태부사를 뜻한다.

(13) 그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예시7>

그 제작자에게 그 사진이 필요하고, 필요한 이유와 용도를 조목조목 설명해서 메일이나 쪽지를 보낸다.

접속 부사어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전·후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14) ㄱ.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일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

ㄴ. 나는 어제 아팠어. 그래서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어.

담화나 사건은 장소, 시간, 대상이 존재할 때 발생한다. 따라서 시간 부

사어와 장소 부사어는 문맥 상 필수적인 문장 성분으로써 구실을 하게 된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텍스트에서 시간 부사어와 장소 부사어가 생략되며 문장이 어색해지거나 비문이 된다. 따라서 시간 부사어와 장소 부사어는 문장을 참신하고 세련되게 표현해주는 부사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시간 부사어와 장소 부사어는 연구 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도 부사어는 다른 수식성분을 순수하게 꾸며주는 부사어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도 부사어는 그 어휘 수가 적으며⁷⁾ 15명의 학습자들의 글을 살펴본 결과 정도 부사를 40개 정도 사용하고 있었다. 이를 통하여 학습자들이 정도부사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접속 부사어는 문장의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부사가 아니라 문장의 응집성을 높여주는 부사이다. 따라서 접속 부사어는 교육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 교육대상으로 삼는 부사어는 다음과 같다.

부사어	순수부사	양태부사, 상징부사
	부사절	

<표1> 부사어 교육 대상 범위

부사어를 형태적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 중 부사와 부사절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 부사는 다시 형태적 기준으로 분류하여 그 중 순수부사와 용언어간에 파생접미사 ‘-이, -히, -리’가 붙어 형성된 부사어만을 교육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다시 의미적 기준에 적용하여 그 중 양태 부사어와 상징 부사어만을 그 교육범위로 삼았다.

아래에서 중학교 2학년 15명의 독서 감상문에 나타난 부사어를 살펴보도록

7) 손남익(1995)에서 논의된 8100여 개의 부사 중에서 정도 부사는 약 50개로 전체의 0.6%에 해당한다.

록 하겠다. 순수부사는 의미적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그 사용량을 살펴보았다. 부사절은 형태적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순수부사	공간	이, 그, 저	3
	시간	항상, 늘, 먼저, 순간, 매번, 가끔, 자주, 언제, 아직, 처음, 지금, 요즘, 바로, 미리, 다시, 자꾸, 순간, 매일,	17
	양태	나름, 실로, 오직, 정작, 정말, 맘껏, 잘, 사실, 별로, 만약, 진짜, 특히, 과연, 아마, 단, 물론, 다만, 심지어, 일단, 어차피, 직접,	21
	정도	너무, 많이, 모두, 무척, 가장, 훨씬, 좀, 더욱, 거의, 매우, 약간, 아주, 보통, 조금씩,	14
	상징	헐끔헐끔, 설렁설렁, 조목조목	3

<표2> 학습자의 순수부사 사용어휘와 어휘 양

부사절	파생부사 ‘-이’	감정 없이, 흔적 없이, 동물과 사람 할 것 없이	3
	용언의 활용 ‘-게, -듯이, -도록’	기분 좋게, 일기를 쓰도록, 책 읽듯이	3
	의존 명사 ‘-듯이, -채로, -대로, -척, -양’	-	0

<표3> 학습자의 부사절 사용어휘와 어휘 양

순수부사 중에서 양태부사가 가장 많이 쓰였고, 그 다음으로 시간부사와 정도부사가 많이 쓰였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사용한 순수부사 어휘를 살펴보면 한정된 단어들만이 쓰이고 있었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부사어 사용빈도에 비례하여 어휘량은 적었다. 특히 구어적 표현에서 자주 사용하는 부

사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그래서 문장이 밋밋하여 진부한 경향을 띠고 있었다. 또한 한정된 부사어를 한 텍스트 안에 여러 번 사용하고 있어 문장이 매끄럽지 못하였다. 상징부사는 3개만 발견되었다. 상징부사를 극히 적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부사절 사용을 살펴보면 15개의 독서 감상문 중에서 부사절은 6개 정도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통하여 학습자들의 부사어 어휘교육과 부사어를 통한 표현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부사어를 통사적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즉, 부사어의 수식 대상의 범주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형용사만 수식하는 부사어, 동사만 수식하는 부사어, 형용사와 부사 모두를 수식하는 부사어로 분류할 수 있다.

용언을 모두 수식할 수 있는 부사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기능을 드러낸다. 특정한 동사와 어울리지 않으므로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기능을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비교적 자유로이 이동될 수 있다.

(15) ㄱ. 그는 학교를 일찍이 그만 두었다.

ㄴ. 일찍이 그는 학교를 그만 두었다.

동사만 수식하는 부사어는 동사성을 가진 용언들만을 수식한다.

(16) ㄱ. 그는 방금 떠났다.

ㄴ. *그녀는 방금 예쁘다.

형용사만 수식하는 부사어는 다음과 같다.

(17) ㄱ. 그는 키가 줄 작다.

ㄴ. * 그는 쥘 먹는다.

이렇게 부사어를 분류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부사어를 알맞은 자리에 쉽게 골라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⁸⁾

나. 연구방법

부사어는 문장성분 중에서 임의적인 성분에 해당하지만 문장을 구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장의 내용을 풍부하고 세련되게 만들며 내용을 자세하고 명확하게 나타낸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부사어 교육을 통하여 학습자들의 문장구성능력과 표현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하여 학습자들이 국어를 창의적이고 효과적이게 사용하도록 하고자 한다.

II장에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부사어교육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의 바탕이며 길잡이다.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교 교육의 방향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의 문법 교육은 대부분 교과서를 통해 이루어지며, 교과서의 설명과 학습활동이 학습의 주가 된다. 따라서 교과서를 통하여 학교에서 부사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III장에서는 부사어 교육 방안을 제시한다. 탐구학습방법을 적용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습자가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학습이 이루어지며 학습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흥미를 돋울 수 있다. 또한 부사어의 쓰임과 특성을 발견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가 부사어의 쓰임과 특성을 내재화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를 실제 언어생활에 적용해

8) 서정수, 19

봄으로써 국어지식이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것이 아님을 깨닫도록 하고 학습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부사어 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이 부사어가 문장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학습자들이 국어를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Ⅱ. 학교문법에서의 부사어 관련 내용 분석

1. 교육과정에서의 부사어 교육 관련 내용 분석

2009 개정 국어과 목표 중 ‘사상과 정서를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라는 교육 내용이 있다.⁹⁾ 이것은 언어 능력 중 학습자의 표현 능력 향상을 국어과의 중요한 내용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상과 정서를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표현하고 생성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 중 부사어는 문장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부사어는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전 학년의 듣기, 읽기, 쓰기의 교육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부사어와 관련된 교육과정의 내용을 살펴보겠다. 2013년 중학교 2, 3학년에 적용되는 교육과정은 2007개정교육과정이고 중학교1학년에 적용되는 교육과정은 2009개정교육과정이다.¹⁰⁾ 이에 먼저 2007개정 교육과정의 8학년, 9학년 국어과 성취기준과 내용을 살펴보겠다.

8학년 교육 과정의 부사어 교육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차수	영역	항목	성취기준	내용
----	----	----	------	----

9) 2013년의 교육과정은 2009개정교육과정 총론을 따르도록 되어있다.

10) 2013년의 학년별 교육과정(각론) 적용은 다음과 같다.

학년별	적용 교육과정(각론)
중학교1학년	2009 개정교육과정
중학교2학년	2007 개정교육과정
중학교3학년	2007 개정교육과정

2007 개정 교육과정	쓰기	(3)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응집성 있게 쓴다.	◦ 쟁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응집성 있게 전개하기
		(5)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이 잘 드러나게 자서전을 쓴다.	◦ 시간 순서에 따라 쓸 내용 정리하기

<표4> 2007 개정교육과정 국어과 교육과정 8학년 부사어 관련 내용

<쓰기>영역에서는 ‘글을 응집성 있게 쓰기’와 ‘시간 순서에 따라 글을 쓰기’를 성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부사어는 글의 응집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글의 응집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글이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표현됨을 뜻한다. 학습자에게 부사어를 사용하여 글을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표현해내는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시간 순서에 따라 글을 쓰기 위해서는 시간부사어의 적절한 사용이 필요하다. 시간 순서에 따라 글을 쓰는 것도 글을 매끄럽게 만드는 방법이다. 따라서 2007 개정 교육과정 8학년의 쓰기 단원에서는 부사어 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표현교육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9학년 교육 과정의 부사어 교육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차수	영역	항목	성취기준	내용
2007 개정 교육과정	문법	(3)	문장의 짜임새를 설명한다.	◦ 서술어와 자릿수의 기능 이해하기 ◦ 문장의 기본 구조를 바탕으로 문장을 확장하는 방법 이해하기 ◦ 안은문장과 이어진 문장을 알고 문장의 연결 방식 이해하기
		(5)	담화 또는 글 구성의 기본 개념을 이해한다.	◦ 통일성과 응집성의 개념 이해하기 ◦ 담화 또는 글에서 통일성과 응집성 판단하기

<표5> 2007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교육과정 9학년 부사어 관련 내용

<문법>영역에서 ‘문장의 짜임새’와 ‘담화와 글의 통일성과 응집성’을 성취기준과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문장의 짜임새에서는 부사어의 개념과 쓰임에 대한 학습과 부사절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담화와 글의 통일성과 응집성’에서는 부사어가 글을 통일성과 응집성이 있게 만듦을 학습할 수 있다.

2012년에 고시된 2009개정교육과정 각론은 2013년에 중학교1학년에 적용된다. 따라서 2009개정교육과정의 국어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부사어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다.¹¹⁾

국어과 [중1-3학년군]의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통합적인 국어 능력을 갖춘다. 상대의 의도를 고려하여 상호작용하고 국어 생활에 대한 관심을 다양한 국어 문화의 세계로 넓혀 간다. 여러 상황에 적합하게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여러 유형의 글을 비판적으로 읽으며, 표현 효과를 고려하면서 글을 쓴다. 어휘 능력을 확장하고 국어 문법의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며, 문학 작품을 다양하면서도 주체적인 관점으로 해석한다.

<표6> 국어과 [중1-3학년군]의 성취 기준

위의 성취 기준에서 ‘표현 효과를 고려하면서 글을 쓴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수식성분인 부사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꾸밈으로써 문장의 단조로움이나 지루함에 변화를 주고 실감나고 재미있는 표현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부사어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부사

11) 2013년에 적용되는 2009개정교육과정 각론은 학년군별로 세부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학년군별이란 [1-2학년군], [3-4학년군], [5-6학년군], [중1-3학년군]으로 세분화된 것을 말한다. 학년군별로 제시된 내용은 그 학년군 안에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면 된다.

어의 표현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중학교 국어교과서에서의 부사어교육 내용 분석

2007개정교육과정부터 국어교과서가 국정에서 검인정으로 바뀌게 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국어 교과서들이 출판되었는데 그 중 2013년 두산 동아와 대교에서 출판된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두산동아 국어(이)교과서¹²⁾의 부사어 교육 내용 분석

중학교 국어 교과서(이)의 2-2학기 3단원 <단어와 문장, 바로 알고 쓰기> 중 소단원 <(2) 문장의 짜임과 확대>을 살펴보겠다. 이 단원은 ‘문장 성분의 개념을 이해하고 부속 성분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과 꾸며주는 성분과 꾸밈을 받는 성분 사이의 호응이 이루어져야 적절한 문장이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문장의 성분]

문장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등을 주성분이라고 하고, 문장의 다른 성분을 꾸며 주는 성분을 부속 성분이라고 하며, 다른 문장 성분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성분을 독립 성분이라고 합니다. 부속 성분에는 ‘관형어’와 ‘부사어’가 있는데, ‘관형어’는 문장의 체

12) 이삼형(2013), 중학교 『국어』 2-2, 두산동아.

언을 꾸며 주는 문장 성분이고, ‘부사어’는 문장의 용언이나 부사를 꾸며 주는 문장 성분입니다. 이들 부속 성분이 쓰일 경우, 주성분만으로 이루어졌을 때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표7> 두산동아, 2013 『국어(이)』, 2-2, 2(2), 부사어 정리

부사어의 기능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하지만 부속성분의 특성을 언급함으로써 부속성분을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활동1] 문장의 성분

탐구1. 다음 보기를 통해 문장을 이루는 성분에 대해 알아봅시다.

<보기>

먹는다. 철수가, 읽는다, 물이, 김밥을, 갑자기, 급하게, 배고픈, 얼음이, 책을, 반장이, 얼음을, 맛있는, 모든, 되었다, 그리고

1. 다음 문장을 완성하기 위하여 각각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 넣어봅시다.

어떠한 철수가 어떠한 김밥을 먹는다.



철수가 김밥을 먹는다.



철수가 김밥을 어떻게 먹는다.

2. 위 1에서 빈칸에 단어를 써넣으면 단어를 넣기 전과 문장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말해 봅시다.
3. 문장에서 ‘어떠한’과 ‘어떻게’에 해당하는 성분의 기능은 무엇인지 정리해 봅시다.

→

<표8> 두산동아, 2013 『국어(이)』, 2-2, 2(2), 활동 1

부속성분에 관한 활동이 많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부사어가 문장에서 ‘어떻게’의 의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며 부사어가 문장에 쓰였을 때와 안 쓰였을 때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도 학습내용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학습자들 스스로 ‘어떻게’에 해당하는 성분의 기능이 무엇인지 정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 활동이 끝난 뒤에 문장성분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교사의 설명이 먼저 필요하다.

교사용 지침서¹³⁾에서 아래와 같이 지도 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1의 활동의도]

문장의 주성분과 부속성분의 역할을 이해하고, 적절한 부속 성분에 의해서 문장의 내용이 보다 풍부하거나 정확해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이다.

[1의 지도요령]

1. 이전에 배웠던 문장의 주성분의 개념을 환기시켜 준다.
2. 문장의 주성분을 수식해 주는 성분이 있으며 이러한 성분을 부속 성분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3. 부속 성분에 의해 문장의 의미가 풍부해지고 보다 정확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표9> 두산동아, 2013 『국어(이)』, 2-2, 2(2), 지도내용 1

이 교과서에서는 부속 성분에 의해 문장의 의미가 풍부해지고 보다 정확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

탐구2. 다음 예시처럼 꾸미는 말을 넣어 봅시다.

<예시>

13) 이삼형(2013), 중학교 『국어』 교사용 지침서 2-2, 두산동아.

귀여운 강아지가 넓은 풀밭에서 맘껏 뛰어다닌다.

1. _____ 눈이 _____ 내린다.
2. _____ 개미가 _____ 배짱이를 꾸짖는다.
3. _____ 이웃이 _____ 친척보다 _____ 낫다.

<표10> 두산동아, 2013 『국어(이)』, 2-2, 2(2), 활동 2

학습자들은 한국어가 모국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을 수 있는 언어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위와 같이 학습자가 스스로 알맞은 단어를 채워 넣게 하고 그 단어들이 부속성분으로써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도록 하는 학습활동이 가능하다.

교사용 지침서에는 아래와 같이 학습을 지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2의 활동 의도]

부속 성분이 주성분을 수식해 줌으로써 문장의 의미가 보다 풍부해진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기 위한 활동이다.

[2의 지도 요령]

1. 주성분을 수식해 줄 수 있는 적절한 부속 성분을 찾아보게 한다.
2. 다양한 부속 성분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풍부한 문장 표현을 위해 적절한 부속 성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표11> 두산동아, 2013 『국어(이)』, 2-2, 2(2), 지도내용 2

다양한 부사어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에게 빈칸에 들어갈 낱말을 여러 개 적어보게 하는 것도 좋을 것이며, 다른 학습자들이 적은 것을 공유할 수도 있다.

탐구3. 다음 각 문장에서 밑줄 친 부속 성분으로 인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장을 바르게 고쳐 써 봅시다.

1. 이 텔레비전은 전혀 새로운 제품라고 할 수 있어요.
→
2. 사람은 모름지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간다.
→
3. 나는 절대로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
4. 재미있는 친구의 삼촌과 함께 영화를 보았다.
→
5. 아직 손님들이 다 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다.
→
6. 그 정당의 대변인은 정부의 정책을 거침없이 매우 심하고 호되게 비판했다.
→

<표12> 두산동아, 2013 『국어(이)』, 2-2, 2(2), 활동3

이 활동에서는 부속성분과 서술어의 호응, 부속성분으로 인한 의미의 중복을 다루고 있다.

교사용 지침서를 보면 아래와 같이 지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3의 활동 의도]

부속 성분으로 다른 성분을 수식할 때 수식하는 부속 성분과 수식을 받는 성분의 호응이 어색하여 잘못된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활동이다. 문장을 구성할 때 적절한 수식관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알도록 하였다.

[3의 지도 요령]

1. 밑줄 친 부속 성분이 수식해 주는 성분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게 한다.
2. 수식하는 성분과 수식을 받는 성분의 호응관계가 자연스러운지 판단해 보게 한다.
3. 수식을 받는 성분을 수식해 주는 적절한 부속 성분이 무엇인지 판단해 보게 한다.

<표13> 두산동아, 2013 『국어(이)』, 2-2, 2(2), 지도내용 3

[지도요령3]에서 수식을 받는 성분을 수식해 주는 부속성분이 무엇인지 학습자들이 판단해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을 하기에는 앞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교과서에서는 부사어를 ‘문장의 용언이나 부사를 꾸며 주는 문장 성분’이라고 정리하고 있었다. 또한 앞의 활동에서도 부사어가 용언의 앞에서만 주로 나타났다. 그런데 위의 예문에서 두 문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사어들은 용언 앞에 있지 않다. 학습자가 부사어에 대한 정확한 쓰임을 알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지도요령1]에서 부속 성분이 수식해 주는 성분이 무엇인지 파악해 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또한 설명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사어는 상대적으로 자리가동이 자유롭고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문장 성분이 있다는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요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활동은 학습자들에게 어려운 내용이 될 것이다.

또한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에 대해 활동을 제시한 것은 좋았지만 중의적 표현에 대한 설명 없이 중의적 문장까지 제시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한 것은 학습자들에게 어려운 활동이었으며 이 단원의 목표를 벗어난 것이다.

다음은 <(3) 문장의 확대 방식>에서 나타나는 부사절을 살펴보겠다.

[활동3] 문장의 확대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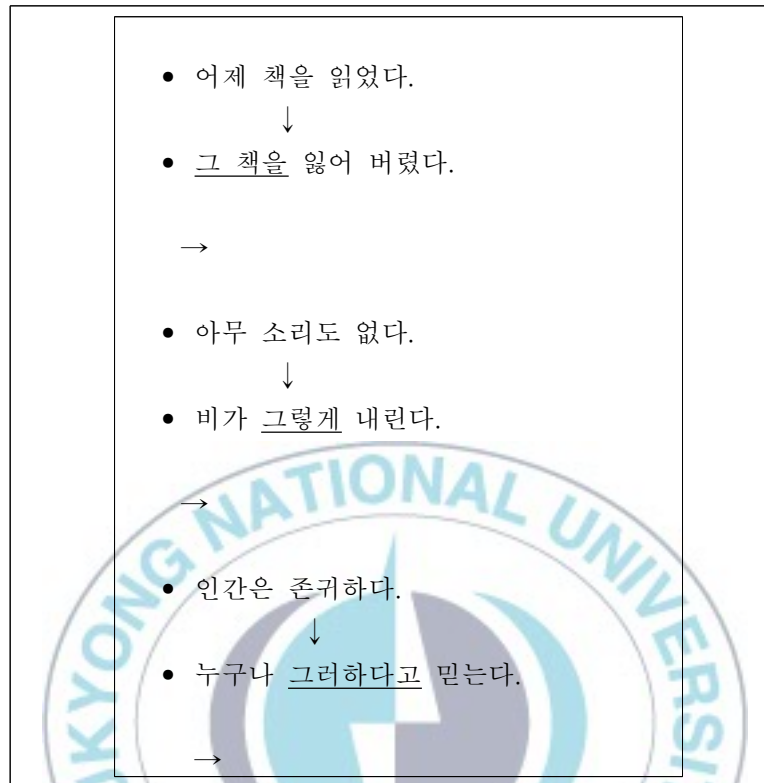
3.1 다음 문장을 보기와 같이 안긴문장으로 만들어 봅시다.

- 학생들이 그 일을 해결하다.

↓

- 그러기가 쉽지 않다.

→



<표14> 두산동아, 2013 『국어(이)』, 2-2, 2(2), 활동4

이 활동은 학습자들이 스스로 안긴 문장을 만들어보도록 하는 것이다.
교사용 지침서의 지도요령을 보면 아래와 같다.

[탐구 3-1활동의 지도요령]

1. <보기>를 통해 안긴문장에는 명사절로 안긴문장, 관형절로 안긴문장, 부사절로 안긴문장, 인용절로 안긴문장이 있음을 소개한다.
2. <보기>를 통해서 안긴문장이 안은문장의 한 성분인 ‘그것, 그, 그렇게, 그러하다고’와 같은 역할을 하는 요소로 안겼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준다.
3. 학생들이 만든 안긴문장을 발표하게 하고, 내용을 확인해 준다.

<표15> 두산동아, 2013 『국어(이)』, 2-2, 2(2), 지도 내용 4

안긴문장을 만드는 것은 학습자들에게 어려운 활동은 아닐 것이다. 학습자들에게 내재화되어 있는 언어적 능력만으로도 간단히 만들 수 있는 활동이다. 그러나 각각의 안긴문장에 대해 학습자들이 스스로 이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그 구분이 어렵다. 특히 부사절은 겹으로 드러나는 표지가 없음으로 학습자들에게는 혼란을 줄 수 있다. 지침요령에서는 안긴문장의 종류에 대해 언급하도록 되어 있다. 각 안긴문장의 설명과 함께 안긴문장의 특징을 밝혀 그 쓰임을 이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3년 두산동아 국어(이)에서는 여러 활동을 통하여 부사어를 이해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리고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통해 학습자들로 하여금 올바른 문장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사어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였으며 부사어의 종류와 기능에 대한 언급도 부족하였다. 교과서의 예문에서 부사어가 다양한 기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또 부사어의 모습을 문장에서만 다룸으로써 부사어의 다양한 기능과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다른 국어 영역에서는 담화나 텍스트의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문장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문장 성분 단원에서 단편적인 지식과 한정된 예문만을 제공하고 있어 아쉬웠다.

나. 대교 국어(왕)교과서¹⁴⁾의 부사어 교육 내용 분석

대교 중학교 국어 교과서(왕)의 3-2학기 3단원 <정확한 문장, 효과적인 문체> 중 소단원 <(1) 문장의 짜임새>에서 부사어와 부사절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14) 왕문용(2013), 중학교 『국어』 교과서 3-2, 대교.

본문에서는 아래와 같이 부사어를 정리하고 있다.

용언의 내용을 한정하는 부사어

<표16> 대교, 2013, 『국어(왕)』, 3-2, 3(1), 부사어 정리

학습자들은 문장의 짜임을 학습하기 전에 품사에 대해 배운다. 하지만 품사는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이다. 그렇기에 ‘용언의 내용을 한정하는 부사어’라는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용언’에 대한 교사의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내용을 한정’한다는 의미 또한 학습자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반면 지도서에는 ‘부사어는 부속성분으로 주로 서술어를 꾸미나 때로는 다른 부사어나 관형어, 문장전체를 꾸미기도 한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이는 학습자들이 보는 교과서의 내용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수식 대상을 언급하고 있으며 부사어가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도 이루어지고 있다. 교과서에 정리된 부사어의 내용도 지도서의 내용처럼 상세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 ‘문장을 확장하는 학습내용’에서 부사어 쓰임과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문장을 확장해 보자.
꽃이 피었다. → _ 꽃이 피었다.
꽃이 _ 피었다.

‘피었다’앞에 ‘활짝’, ‘일찍’과 같은 부사어를 넣어 문장을 확장할 수 있다.
이렇게 확장된 문장은 확장되기 전의 문장보다 그 의미가 더 자세해진다.

<표17> 대교, 2013, 『국어(왕)』, 3-2, 3(1), 부사어 학습활동

부사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확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문장의 의미가 더 자세해짐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활짝’, ‘일찍’이 부사어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도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지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서술어’를 꾸며 줄 때에는 ‘부사어’를 사용해야 함을 알게 한다. 더불어
둘 이상의 어절을 넣을 수도 있음을 알게 한다.

<표18> 대교, 2013, 『국어(왕)』, 3-2, 3(1), 부사어 지도 내용

이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부사어가 서술어를 꾸민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둘 이상의 어절을 넣어 문장을 꾸밀 수 있음을 알게 하여 풍부한 문장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긴문장, 안은문장>에서 부사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다음 밑줄 친 안긴문장이 안은문장 속에서 어떤 문장 성분 구실을 하는지
적어 보자.

불꽃놀이**는** 밤이 새도록 계속되었다. ()

<표19> 대교, 2013, 『국어(왕)』, 3-2, 3(1), 부사절 지도 내용

교과서에서는 ‘부사어 구실을 하는 부사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두산동아 중학교 국어교과서(이)와 마찬가지로 ‘부사절’이라는 용어를 언급하고 있다. 앞의 활동을 통해 부사어 구실이 서술어를 꾸미는 것임을 알게 되었으므로 위의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아래는 이어진 문장에 대한 학습내용이다.

이어진 문장은 접속 부사를 사용한 문장으로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책을 읽는다.’라는 문장과 ‘친구는 음악을 듣는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 앞 문장의 서술어에 연결 어미 ‘-는데’를 사용하면 ‘나는 책을 읽는데,
친구는 음악을 듣는다.’라는 이어진 문장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장

은 접속 부사를 사용하여 ‘나는 책을 읽는다. 그런데 친구는 음악을 듣는다.’라는 두 문장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두 문장을 접속 부사로 연결하면 앞뒤 문장의 연결 관계가 더 잘 드러난다. (중략) 또 여러 문장을 이어 쓰면 산만한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접속 부사를 알맞게 사용하여 응집성 있는 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표20> 대교, 2013, 『국어(왕)』, 3-2, 3(1), 이어진 문장

‘그런데’를 접속부사라는 용어로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 다른 교과서에서 ‘접속사’라고 언급하는데 반해 이 교과서에서는 접속부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런데’가 부사에 속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이 접속부사가 문장을 연결하고 응집성 있는 글을 만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위 부사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1) 부사어는 용언의 내용을 한정한다.
- 2) 부사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확장할 수 있다.
- 3) 부사어를 사용하면 문장의 의미가 더 자세해진다.
- 4) 부사어는 문장을 연결하고 응집성 있는 글을 만든다.

부사어의 쓰임과 기능은 예문과 활동,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부사어라고 제시한 형태는 ‘활짝, 일찍, 그런데’밖에 없다. ‘활짝’은 양태부사, ‘일찍’은 시간부사, ‘그런데’는 접속부사로, 결국 이 교과서에서 제시한 부사어의 종류는 세 가지 밖에 없는 것이다. 부사어는 그 종류도 다양하고 쓰임도 다양하다. 종류에 따라 문장에서의 쓰임도 달라진다. 하지만 위와 같이 세 개의 부사어만을 제시해서는 부사어의 다양한 쓰임을 보여줄 수 없다. 부사어의 다양한 쓰임과 형태를 알아야 학습자들이 문장을 확장하여 쓸 수 있다.

위 두 교과서의 공통적인 문제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부사어의 기능과 특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부사어가 서술어를 꾸며주고 한정한다는 설명은 하고 있지만 그 외 관형어, 체언,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는 설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부사어의 수식기능이 의미를 세밀하게 분별하고 문장을 풍부하게 만들어준다는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부사어의 단순히 수식기능만을 설명하고 있어 학습자들이 부사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둘째, 교과서에 제시된 부사어의 종류가 적다. 두 교과서에 나타난 부사어는 평균적으로 5개 정도이다. 그 부사어들은 대체로 양태부사, 시간부사, 접속부사이다. 부사어는 그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다. 학습자들이 문장에서의 부사어 쓰임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부사어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습활동이 적다. 학습자는 학습활동을 통해서 개념을 이해하고 쓰임을 익히게 된다. 학습활동은 곧 경험이다. 학습활동이 적으면 학습자는 그만큼 경험을 덜하게 된다. 또한 학습활동이 적음으로써 사용되는 부사어의 예시도 적어진다. 이에 학습자들은 다양한 부사어를 접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더 많고 다양한 학습활동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부사어의 쓰임과 형태를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학습자들은 모국어화자들이므로 교과서에서 제시되는 단문에 알맞은 부사어를 써 넣는 것은 아주 간단히 할 수 있는 활동이다. 교과서에서는 단편적인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 그러한 학습활동들을 제시한 것이겠지만 이는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활동이라고 생각된다. 개념을 익히는 활동은 하나로도 충분하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사어의 다양한 쓰임을 익힐 수 있는 학습방법이 제시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사어의 사용을 내재화할 수 있는 쓰기활동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부사어를 사용하여 글을 생산해내는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들은 부사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풍부하게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유의미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부사어를 사용한 문장을 풍부하고 세련되게 표현해내는데 흥미를 느끼게 되며 문장을 풍부하게 만들고자 하는 글쓰기 태도가 내재화될 것이다.



Ⅲ. 부사어 교육의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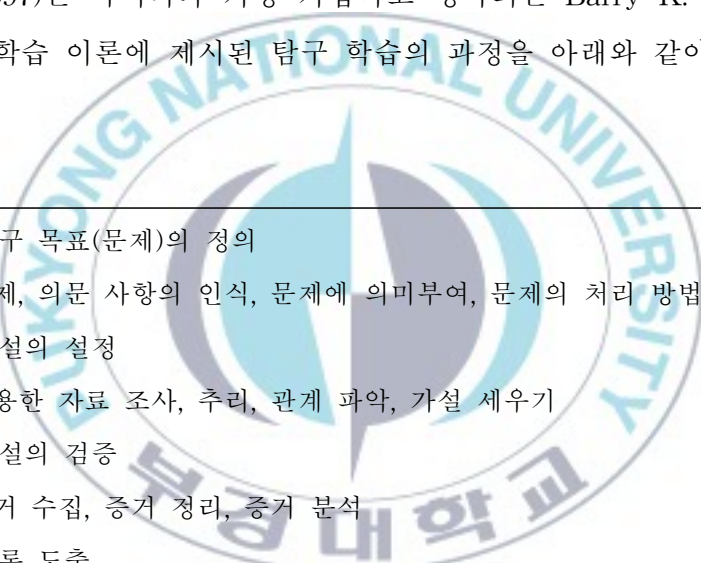
1. 부사어 수업 모형과 교육 방안

가. 부사어 수업 모형

7차 교육과정부터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종래의 주입식 교육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학습자들의 사고력과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비판적 의견의 수용 결과로 보인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은 학습자가 학습에 흥미를 가지도록 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는 교육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흥미, 학습자의 활동,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 중요시되었다. 이에 제시된 교수학습방법이 탐구학습이다. 탐구학습은 듀이나 브루너 같은 학자들에 의해서 지지되어 온 교수 방법의 하나로 이미 널리 알려진 교수 학습 방법이다. 이 교수학습방법은 사회과 과목이나 과학과목에서 보편화된 교수학습방법이었다. 이 학습방법은 학습자들이 지식을 발견하는 탐구활동을 통하여 사고력을 기르고 학습효과를 높이는 교육 방법이다. 학습자들이 지식을 발견하는 경험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학습자 중심의 방법이며 활동 중심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고 학습자의 탐구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국어지식교육에서도 탐구학습방법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국어지식교육은 어렵고 지루한 내용으로 교사와 학습자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과목이었다. 특히 단편

적인 지식을 무조건 외워야하는 학습방법이 문제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탐구학습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언어는 흥미롭고 적절한 탐구 대상이다. 언어는 자연, 사회현상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현상에 해당하며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항상 사용하기 때문에 자료를 구하는 일도 쉬울 뿐만 아니라 탐구하기에도 좋은 대상이다. 이에 국어지식영역에서의 탐구학습모형이 제시되었다. 국어지식영역에서의 탐구학습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광해(1997)는 국어과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Barry K. Beyer의 사회과 탐구 학습 이론에 제시된 탐구 학습의 과정을 아래와 같이 요약 정리하였다.

- 
- | |
|---------------------------------------|
| 1. 탐구 목표(문제)의 정의 |
| 문제, 의문 사항의 인식, 문제에 의미부여, 문제의 처리 방법 모색 |
| 2. 가설의 설정 |
| 유용한 자료 조사, 추리, 관계 파악, 가설 세우기 |
| 3. 가설의 검증 |
| 증거 수집, 증거 정리, 증거 분석 |
| 4. 결론 도출 |
| 증거와 가설 사이의 관계 검토, 결론 추출 |
| 5. 결론의 적용 및 일반화 |
| 새로운 자료에 결론 적용, 결과의 일반화 시도 |

<표21> Barry K. Beyer의 사회과 탐구 과정

김광해(1997)는 이를 바탕으로 탐구 학습의 실재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위의 탐구학습단계는 학습자들이 언어현상을 탐구하는데 있어 적용하기가 어렵고 이를 실제 학교 수업에서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많은 국어지식 영역의 탐구학습모형은 이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아래는 박영목 외(1995)의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이다.

1. 목표설정(목표의 확인 및 방향 설정)
2. 기본학습(지식의 제공)
3. 탐구학습(사실의 분석)
4. 발전학습(가치관 및 태도의 변화)
5. 평가(결과의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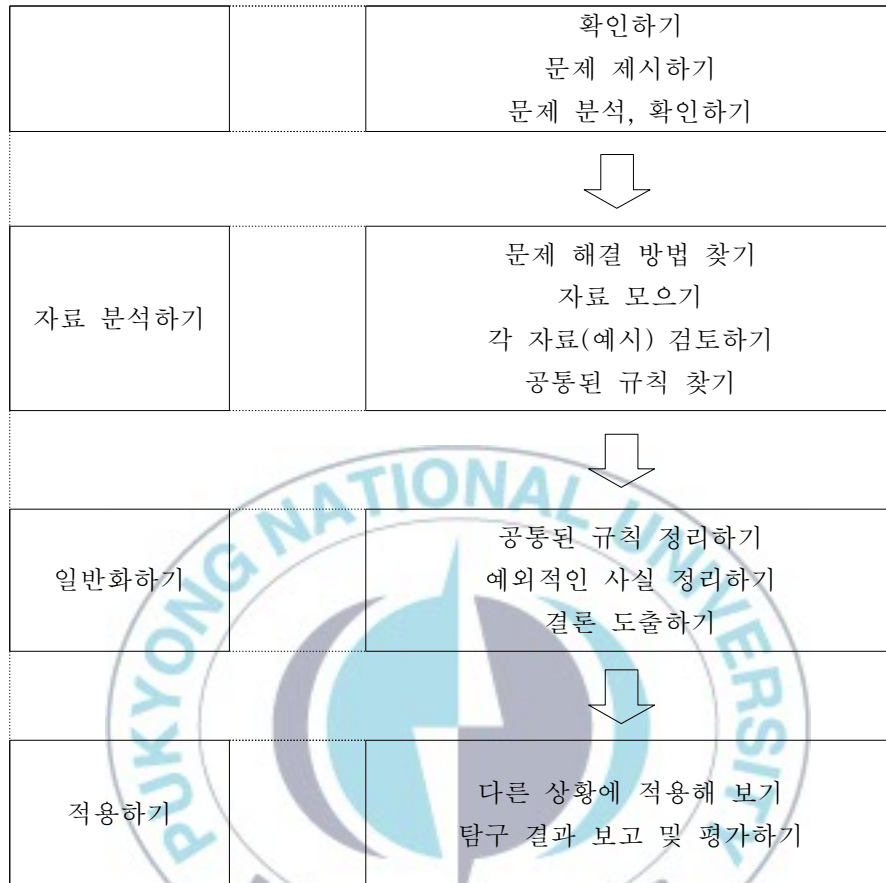
<표22> 박영목 외(1995)의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이는 국어지식영역의 교수학습방법이 아니라 국어과 전반의 교수·학습 방법이다. 탐구학습이 전체 교수학습방법이 아니라 기본학습과 발전학습 사이에 적용되는 학습방법으로 배치하고 있다.

탐구 학습의 절차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재승, 2005:140)

첫 번째 방법은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한 다음 이들을 분석하여 하나의 일반화된 사실을 이끌어내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법을 교육학 일반에서 개념 습득 학습 모형이라고 부른다. 다음은 개념 습득형 탐구학습의 절차이다.

과정(단계)	주요활동
문제 확인하기	동기 유발하기 관련 지식 및 개념 익히기/선수학습



<표23> 개념 습득형 탐구 학습의 절차

개념 습득형 탐구학습방법은 가설단계를 설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선수 학습이 이루어진 후에 문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각 과정에 따른 활동이 세분화되어 있어 실제 수업에 적용하기 유용하다. 또한 교사가 예를 제시하고 학습자들이 이를 통해 일반화된 규칙을 이끌어 내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부담이 덜하다.

두 번째 방법은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여 일반화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실험 설계의 주요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험형 탐구 학습이라고 한다.

과정(단계)		주요 활동
문제 확인하기		탐구 분위기 조성하기 학습 절차 확인하기 관련 지식 및 개념 익히기/선수 학습 확인 학습 과제 확인하기
		↓
가설 설정하기		문제 분석하기 가설 설정하기 가설 진술하기
		↓
가설 검증하기		가설 검증 방법 탐색하기 필요한 자료 모으기 자료 분석, 평가하기 가설 검증하기
		↓
결론 도출하기		결론 도출하기 일반화 가능성 탐색하기 일반화하기 학습 활동 평가 및 정리

<표24> 실험형 탐구 학습의 절차

이 탐구 학습방법은 앞의 탐구학습방법과는 달리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해야 함으로써 좀 더 어려운 학습방법이다. 물론 시간도 더 많이 걸린다. 그러나 더 높은 수준의 탐구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세 번째 방법은 일반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나 정보를 수집하거나 증거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방법은 답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개방형 탐구 학습’이라고 한다.

과정(단계)		주요 활동
문제 상황 분석하기		탐구 분위기 조성하기 문제 상황 제시하기 문제 상황 분석하기 문제 상황 인식하기
문제 탐구하기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 세우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찾기 각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
문제 해결하기		각 방안 정리하기 각 방안들의 관계 파악하기 각 방안을 정리하기
적용하기		각 방안의 실천 가능성 모색하기 실천상의 구체적인 문제 정리하기 학습 활동 평가 및 정리하기

<표25> 개방형 탐구 학습의 절차

이 탐구 학습 방법은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단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학습방법은 교사가 예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사례나 예를 찾는다는 점에서 개념 습득 학습 모형과 다르다.

나. 부사어 교육 방안

교과서와 학습자들의 부사어 사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학습자들에게 이루어져야 할 부사어 교육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의 교과서에서는 부사어의 기능과 특성이 아주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어 부사어의 기능과 특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부사어가 수식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만 설명할 뿐이다. 그 기능을 통하여 문장을 풍부하게 만들고 의미를 세밀하고 자세하게 나타낸다는 것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기능을 올바르게 이해하여야 고급스럽고 맛깔스러운 문장을 생산해낼 수 있다. 이러한 부사어의 기능과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접교수법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탐구학습법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탐구학습은 학습자 주도의 활동수업이며 탐구활동을 통하여 사고력을 향상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교사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제대로 학습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업 시수를 필요로 하기에 실제 수업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학습자들의 수준에 맞는 탐구학습이 이루어진다면 학습자들의 흥미를 돋울 뿐만 아니라 학습 효과까지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규칙을 밝혀내야 하는 문법현상과는 다르게 부사어의 기능과 특성을 밝혀내는 것이므로 학습자들의 부담감이 덜 할 것이며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사어의 기능과 특성을 밝혀내는 것은 곧 부사어의 개념을 밝혀내는 것이므로 앞에서 제시한 개념 습득형

탐구학습 방법을 적용한다. 개념 습득형 탐구학습 방법은 세부 활동이 간략하면서도 학습자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시되었다.

다음은 개념 습득형 탐구학습 방법을 바탕으로 만든 부사어 교수학습과정이다.

과정(단계)	주요 활동
문제 확인하기	동기 유발하기 문제 제시하기
자료 분석하기	↓ 각 자료(예시) 검토하기 공통된 규칙 찾기
일반화하기	↓ 공통된 규칙 정리하기 예외적인 사실 정리하기 결론 도출하기
적용하기	↓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표26> 부사어 탐구 학습 모형

문제 확인하기 단계는 탐구해야할 현상에 대해 의문과 호기심을 가지는

단계이다. 학습목표와 관련된 자료(예문)나 질문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흥미를 가지도록 한다.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잘못된 답변이라도 제재를 가하지 않아야 한다.

자료 분석하기 단계는 학습자들이 풀 수 있는 학습 자료를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이를 풀어감으로써 제기된 문제의 답을 찾아가는 단계이다. 학습지를 제공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내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수준에 맞는 자료를 제시하여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단계이다.

일반화하기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발견한 공통점이나 반복되는 현상을 바탕으로 도출할 수 있는 규칙이나 원리를 정리하는 단계이다.¹⁵⁾ 하지만 학습자들이 정확한 답을 내놓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교사가 학습자의 결론을 정리하고 보충하여 올바른 결론도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적용하기 단계는 학습자들이 도출해낸 내용을 실제 언어생활에 적용해보는 단계이다. 이를 통하여 국어지식 교육이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것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이 스스로 터득한 내용을 실제 언어생활에 적용해보거나 언어적 결과물로 생산해냄으로써 배운 내용을 더 강력하게 내면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사어의 기능과 특성을 밝혀내고 이해한다고 해서 고급스럽고 맛깔스러운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사어 어휘에 대해 많이 알고 있어야 풍부하고 세련된 문장을 생산할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교과서에서 부사어 어휘를 많이 제시하고 있으며 학습자들의 부사어 사용발달도 크게 향상된다.¹⁶⁾ 하지만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부사어 교육이 중점적

15) 송현희(2005:30)참조.

16) 이영신(1999:62) 참조

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제시되는 부사어 어휘 또한 초등학교에서 제시되는 부사어 어휘와 그리 다르지 않다. 중학교 학습자들의 글과 이영신(1999)의 초등학교 학습자들의 글에 나타난 부사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부사 어휘의 종류는 큰 발달이 없었다. 중학교 학습자들은 ‘많이, 잘, 너무, 엄청, 정말, 진짜’등 한정된 부사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합성 부사나 의성어·의태어의 사용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학습자들의 부사어 어휘력이 낮음을 보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부사어가 그만큼 학습자들에게 노출되지 않음을 뜻하기도 한다. II장 교과서 분석결과에서도 밝혔듯이 학습자에게 제시되는 부사어는 극히 적으며 그 종류와 형태 또한 극히 일부이다. 부사어는 그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이를 인지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부사어가 제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종류와 형태를 설명하고 학습자가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종류와 형태가 사용된 예문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이를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들의 부사어 어휘력 향상을 위해서는 부사어 어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사어 어휘 교육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행평가와 같은 장기간 꾸준히 이루어지는 학습 과정의 개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습자의 표현력을 향상하기 위한 부사어 어휘 교육 방안은 다음과 같다. 교사가 중학교 학습자들이 알아야 할 부사어 어휘를 모아서 학습자들에게 제시한다. 학습자들은 제시된 부사어를 사전에서 찾아 그 뜻을 적고 그 부사어를 사용하여 알맞은 문장을 만든다. 이러한 활동을 한 과정 동안 하도록 한다. 어휘를 알고 이를 통하여 문장을 생산해 내므로 학습자들의 부사어 어휘력과 문장표현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본다. 이후 학습자들의 글쓰기 활동을 살펴봄으로서 학습자들의 부사어 사용을 통한 표현력 향상을 알아본다.

(1) 미주알고주알 : 이것저것 속속들이 캐어묻는 모양

문장1) 민희는 내 사생활을 미주알고주알 캐물어봐.

(2) 고즈넉이: 고요하고 아늑한 상태로

문장1) 할머니는 새벽마다 고즈넉이 앉아서 동이 트는 것을 지켜보셨다.

(3) 짜장: 과연, 정말로

문장1) 영수는 짜장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

(4) 따따부따: 딱딱한 말씨로 따지고 다투는 소리 또는 그 모양

문장1) 정민이는 따따부따 내 일에 참견이야.

<표27> 부사어 어휘력 향상을 위한 과제 예시

2. 부사어 지도 방안

가. 교수·학습지도안

문장을 풍부하고 참신하게 표현해내는 부사어의 특성에 중점을 두어 지도할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문장구성능력과 표현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수·학습지도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 단 원	문장의 짜임	소단원	(2) 문장의 성분
학 습 목 표	1. 부사어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2. 부사어를 사용하여 글을 생산해낼 수 있다.		
단 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지도상 의 유의점
도 입 (5)	준비 단계	1. 동기부여 부사어를 사용하여, 학습자들 개개인의 특성을 말한다. 부사어를 강조하여 발화함으로써 수업 분위기를 고취시킨다. 2. 학습목표확인 1) 부사어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2) 부사어를 사용하여 글을 생산해낼 수 있다.	- 학습자들의 기 분 이 상 하 지 않 도 록 장 점 위 주 로 이야 기 한다.
전 개	본 시 전 개 1-문 제 확 인	1. 문제 확인하기 부사어를 사용하지 않은 문장과 부사어를 사용한 문장을 비교함으로써 부사어 사용으로 인해 어떠한 의미 차이가 생기는지 알아본다. (부사어가 문장에서 생략 가능함을 알게 한다.)	

전 개	본시 전개 2- 자료 분석	1. 문장 확장하기 빈칸이 있는 문장과 텍스트를 제시하여 학습자가 문맥에 맞는 부사어를 넣어보게 한다. 이를 통하여 부사어가 문장을 확대하는 역할을 함을 알게 한다. 2. 문장을 다양하게 표현하기 이미 제시된 부사어를 다른 유사한 의미의 부사어로 바꾸어 같은 문장을 다양하게 표현해내는 활동을 한다. 이와 같은 학습활동을 통하여 부사어가 문장에서 하는 기능을 발견하고 이해한다.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너무 산만해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전 개	본시 전개 3-일 반화 하기	3. 일반화하기 1) 부사어는 문장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꾸민다. 2) 부사어는 문장의 의미를 자세하고 명확하게 나타낸다. 학습자가 앞의 자료 분석 활동을 통하여 부사어의 특성과 역할을 도출해낸다.	
	본시 전개 4- 적용 하기	앞의 학습활동을 통하여 부사어의 특성과 쓰임을 이해하고 부사어를 사용하여 풍부한 문장을 생산해내도록 한다.	
	정리	1. 학습내용정리 배운 내용을 상기하며 수업을 마무리 한다. 2. 차시 수업내용 인지	

<표28> 부사어 교수·학습 지도안

나. 수업의 실제

(1) 문제 확인하기

부사어를 사용하지 않은 문장과 부사어를 사용한 문장을 비교하여 의미 차이가 생김을 이해한다. 또한 부사어가 문장에서 생략 가능함을 알게 한다.

(1) 부사어가 생략되지 않은 글

나는 **온종일** 그 방 안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상을 옮겨 가며 책을 보았다. 동쪽 창으로 들어온 햇살이 **어느새** 고개를 돌려 벽을 향하면 펼쳐 놓은 책장에는 **설핏**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것도 알아채지 못하고 책 속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깨닫게 되면 **얼른** 남쪽 창가로 책상을 옮겨 놓았다. 그러면 **다시** 얼굴에 **가득히** 햇살을 담은 책이 나를 보고 환하게 웃어 주었다. 날이 저물어 갈 때면, 해님도 아쉬운지 서쪽 창가에서 **오래오래** 햇살을 길게 비껴 주었다. 햇살이 환한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책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신기하기도 했다.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책 한 권이 이 세상에서 차지하는 공간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가로 한 뼘 남짓, 세로 두 뼘 가량, 두께는 엄지손가락의 절반쯤이나 될까. 그러나 **일단** 책을 펼치고 보면, 그 속에 담긴 세상은 **끝도 없이** 넓고 아득했다. **넘실넘실** 바다를 건너고 **굽이굽이** 산맥을 넘는 기분이었다.

『책만 보는 바보 中』

(2) 부사어가 생략된 글

나는 그 방 안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상을 옮겨 가며 책을 보았다. 동쪽 창으로 들어온 햇살이 고개를 돌려 벽을 향하면 펼쳐 놓은 책장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것도 알아채지 못하고 책 속에 빠져 있다가 깨닫게 되면 남쪽 창가로 책상을 옮겨 놓았다. 그러면 얼굴에 햇살을 담은 책이 나를 보고 환하게 웃어 주었다. 날이 저물어 갈 때면, 해님도 아쉬운지 서쪽 창가에서 햇살을 길게 비껴 주었다. 햇살이 환한 방 안에 앉아 책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신기하기도 했다.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책 한 권이 이 세상에서 차지하는 공간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가로 한 뼘 남짓, 세로 두 뼘 가량, 두께는 엄지손가락의 절반쯤이나 될까. 그러나 책을 펼치고 보면, 그 속에 담긴 세상은 넓고 아득했다. 바다를 건너고 산맥을 넘는 기분이었다.

<표29> 부사어 문제 학습 단계 예시

(2) 자료 분석하기

학습자가 자료를 모으거나 해결방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뿐더러 시간이 많이 요구된다. 따라서 학습자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학습

자료를 제공한다. 단계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학습자들이 학습 자료를 푸는 과정에서 규칙과 특성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습자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흥미를 돋우고 자신감을 부여할 수 있다.

(가) 문장 확장하기

1. 짧은 문장 제시

1) 철수는 공부를 하다가 잠이 들었다.

철수는 공부를 하다가 잠이 (까무룩) 들었다.

철수가 (여태) 공부를 하다가 잠이 (까무룩) 들었다.

2) 철수는 나에게 시비를 걸었다.

철수는 나에게 시비를 (톡톡) 걸었다.

철수는 나에게 (공연히) 시비를 (톡톡) 걸었다.

2. 텍스트 제시

토끼는 별주부와 (함께/같이) 물가로 (폴짝) 내려와 별주부의 등에 (살포시) 올라앉았다. 그러고는 두 눈을 (꼭/질끈) 감았다. (갑자기/순간), 몸이 (두둥실) 뜨는가 싶더니만 (어느새/ 갑자기) 바다 속으로 (쑥) 빠져들었다. 눈을 (번쩍/슬그머니) 떠 보니 오색구름이 궁궐을 (찬란하게/아름답게/눈부시게) 휘감고 있었는데, 문 위에는 ‘북해 용궁’이란 현판이 (웅장하게/커다랗게) 걸려 있었다. 용궁 문 앞에는 많은 줄개들이 (삼엄하게/엄숙하게) 늘어서 있었다.

『두산동아(이) 2-2, 5. 열린 문학, 다양한 해석, ‘토끼전’ 中』

<표30> 부사어 자료 분석 단계 예시 1

먼저 짧은 문장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문장을 확대시키도록 한다. 부사어 개수를 점점 늘려가면서 문장을 확대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부사어가 문장의 의미를 자세하고 명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부사어가 들어갈 부분을 빈칸으로 표시해 놓은 텍스트를 제시한다. 학습자들에게 빈칸에 알맞은 부사어를 넣도록 하여 텍스트를 완성하게 한다.

이를 통하여 부사어가 문장을 맛깔스럽고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나) 문장을 다양하게 표현하기

1. 상징부사어로 고치기

(1) 예쁜 인형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다.
↓
예쁜 인형들이 (울망줄망) 진열되어 있다

(2) 쉬는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었다.
↓
쉬는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와글와글) 떠들었다.

2. 부사를 부사절로 바꾸기

(1) 철수는 학교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다.
↓
철수는 학교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발에 쥐가 나도록) 뛰었다.

(2) 영수는 돈을 (너무 많이) 쓴다.
↓
영수는 돈을 (물 쓰듯이) 쓴다.

<표31> 부사어 자료 분석 단계 예시2

부사어는 유사한 의미를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다. (1)의 ‘많이, 시끄럽게’는 의태어 ‘울망줄망, 와글와글’로 바꾸어 쓸 수 있다. 부사어는 부사를 부사절로, 부사절을 부사로 바꾸어 쓸 수 있다. 부사를 부사절로 바꾸면 의미가 더 자세해지고 강조된다. 이를 통하여 학습자들이 자신의 감정이나 사물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부사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빈 칸에 들어갈 수 있는 부사어를 보기에서 골라 써 넣어보자.

<보기>

자주, 방금, 확실히, 아주, 정말, 매우, 방금, 급히, 늘, 대개

1. 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 부사어를 골라 써 넣어보자.

(1) 그는 간식을 자주, 방금, 급히 먹었다.

2.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는 부사어를 골라 써 넣어보자.

(1) 아이들은 매우, 확실히, 아주 순진하다.

3. 동사, 형용사 모두를 수식할 수 있는 부사어를 골라 써 넣어보자.

(1) 학교 앞의 떡볶이 집은 늘 맛있다.

그녀의 강아지는 늘 잔다.

(2) 우리 반 친구들은 정말, 대개 노래를 잘 부른다.

반장들은 정말, 대개 똑똑하다.

<표32> 부사어 자료 분석 단계 예시3

동사만 수식할 수 있는 부사, 형용사만 수식할 수 있는 부사, 동사·형용사를 모두 수식할 수 있는 부사를 학습자들이 찾아 쓰도록 하는 활동이다. 이 활동은 아주 간단한 활동이지만 이를 통하여 학습자들이 부사어가 용언과의 관계에 따라 달리 쓰임을 이해할 수 있다.

(3) 일반화하기

자료 분석 단계에서의 한 학습활동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

1. 부사어는 문장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꾸민다.

2. 부사어는 문장의 의미를 자세하고 명확하게 나타낸다.

3. 부사어는 문장을 생동감 있게 나타낸다.
4. 부사어는 문장을 재미있게 만들어준다.
5. 부사어는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표32> 부사어 일반화 단계 예시

(4) 적용하기

앞의 학습활동을 통해 부사어의 쓰임과 특성을 이해하였다. 이를 실제 언어생활에 적용해봄으로써 부사어의 사용과 개념을 내재화할 수 있다.

부사어를 사용하여 풍부하고 세련된 글을 생산해내도록 지도한다. 이 때, 학습자들에게 양태부사와 상징부사, 부사절을 제시하여 주는 것이 좋다. 학습자들이 머릿속에 부사어 어휘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부사어를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골라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시된 것을 쓰다보면 학습자들에게 부사어 어휘가 내재화될 것이며, 새로운 의미를 가진 부사어를 생산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가) 시 짓기

부사어를 사용하여 짧은 시 짓기를 한다. 시는 짧고 재미있게 지을 수 있다. 또한 형식상의 구애를 크게 받지 않으며 시는 시적 허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시를 지을 수 있다. 다양한 부사어 어휘를 넣어 재미있는 시를 생산해 낼 수 있다. 시를 생산해 낸 후 발표를 통하여 학습자들이 생산한 글에 의미를 부여하고 학습자 스스로가 풍부하고 참신한 문장을 생산해 낼 수 있음을 깨닫게 해 주어야 한다.

(나) 편지 쓰기

편지 쓰기는 자신의 감정, 구체적인 상황 묘사 등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부사어를 사용하여 글을 쓰기에 적절하다. 친구들에게 편지쓰기는 더욱 흥미로운 소재이다. 친구에게 쓰는 것이므로 편안하게 쓸 수 있고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사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먼저 학습자가 의식적으로 부사어를 사용하여 글을 쓰도록 지도한다. 학습자가 글을 다 쓰고 나면 쓴 글을 다시 검토하여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부사어를 삽입하도록 한다.

수업 시간 중에 마지막 활동인 적용하기 단계를 하지 못할 경우 과제로 제시할 수도 있다.



VI. 결론

이 글은 부사어 사용을 통하여 학습자들의 문장구성능력과 표현력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부사어를 사용함으로써 다양하고 풍부한 의미를 가진 문장을 생성해낼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언어생활에 적용하여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언어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I 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대상 및 방법, 선행 연구를 제시하였다. 연구 대상 및 방법에서는 교육할 부사어를 한정하였다. 이는 부사어는 그 형태와 의미,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다루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부사어는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문장 성분이 아니지만 텍스트에서는 문맥의 흐름상 부사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부사어가 사용된 중학교 2학년 학습자들의 글을 예로 들어가며 표현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부사어를 한정하였다. 표현력 향상에 도움이 될 만한 부사어로 순수부사 중 양태부사, 상징부사와 부사절을 선택하였다. 이와 같이 교육할 부사어를 한정한 것은 양태부사와 상징부사는 국어 부사 체계 내에서 많이 발달되어 있어 그 어휘량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문장의 내용을 순수하게 수식하며 다른 부사보다 생동감과 재미가 더 많이 드러나는 부사어들이기 때문이다. 부사절은 상투적인 부사어 대신 사용할 수 있어 문장의 진부함을 벗어던지게 해준다. 특히 부사절은 문장 안에서 다양한 활용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부사절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이 낮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양태부사, 상징부사, 부사절을 교육할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II 장에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통해 학교교육에서의 부사어 교육내용

을 살펴보았다. 교육과정은 학교교육의 바탕이며 길잡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살펴봄으로서 학교 교육의 방향을 살펴볼 수 있다. 교육과정에 나타난 부사어 교육 관련 내용을 살펴본 결과 부사어를 쓰기와 문법에서 그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있었다. 문법영역에서는 부사어의 이론적인 설명과 기능에 대한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쓰기에서는 부사어를 글을 쓰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 교육내용을 제시하고 있었다. 학교에서의 문법 교육은 교과서의 의존도가 높다. 교과서의 설명과 학습활동이 문법 교육의 전부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교과서를 살펴봄으로써 학교에서의 부사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2013년 국어교과서 두 권을 살펴본 결과 한 장 정도의 분량에서 관형어와 부사어를 함께 다루고 간략한 이론만을 전달하고 있었다. 하지만 단편적인 이론만을 제시하기에 부사어는 단순한 문장 구성 성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사어는 표현력과 문장 구성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문장 성분에 해당한다. 이에 III장에서는 표현 능력 향상을 위한 부사어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부사어 교육 방안은 탐구학습방법을 사용하였다. 국어지식은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언어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학습방안이 필요로 하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스스로 언어현상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탐구학습방법을 적용하였다. 국어 지식 교육에서 주입식 교육, 교사 중심의 교육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학습자들에게 지식을 단편적이고 수동적으로 학습하도록 하는 것은 국어지식교육을 더욱 기피하게 만든다. 특히 부사어가 문장을 단순히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풍부하고 참신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부사어의 의미적 기능을 학습자가 탐구하고 실제 적용해 봄으로써 부사어의 쓰임을 내재화할 수 있다. 부사어의 탐구 학습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습자들이 쉽게 언어현상을 발견하고 이해하도록 단계적인 학습 자료를 제공하였다. 학습자들이 이를 해결해가면서 부사어

의 특성과 개념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를 실제 언어생활에 적용함으로써 그 쓰임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습자들이 부사어를 사용하여 실제 언어활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능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학습자들은 국어지식이 일상생활과 동떨어지는 학습이 아님을 깨닫고 국어지식교육에 흥미를 가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중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의 부사어 교육내용을 밝히고 학습자 중심의 부사어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 고영근·구본관 (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고춘화 (2010), 『국어교육을 위한 문법 교육론』, 역락
- 교육인적자원부 (2007), 『2007개정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 김광해 (1999), 국어지식 교육론, 서울대학교
- 서정수 (1996), 『국어문법』, 한양대학교출판부.
- 손남익 (1995), 『국어부사연구』, 박이정.
- 왕문용 (2013), 중학교 『국어』, 대교
- 이삼형 (2013), 중학교 『국어』, 두산동아.
- 이재승 (2005), 『좋은 국어 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 수업 방법 19가지』, 교학사
- 임유중 (1999), 『한국어 부사 연구』, 한국문학사.
- 임지룡 (2005), 『학교 문법과 문법 교육』, 박이정.
- 임지룡 (2010), 『문법 교육론』, 역락.
- 전경원 (2013), 중학교 『국어』, 두산동아.
- 최미숙 (2008), 『국어교육의 이해』, 사회평론
- 최호철 (2009), 『국어 문법 교과서 연구』, 제이앤씨.
- 허 웅 (1997), 『국어학: 우리말의 오늘』, 어제, 샘문화사
- 허 웅 (1997), 『언어학: 그 대상과 방법』, 샘문화사

<학위논문·학술지>

- 기영학 (2007), 「텍스트에서 부사어의 기능과 지도 방안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인교육대학교.
- 김경훈 (1996), 「현대국어부사어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경훈 (1996), 「필수적 부사어와 임의적 부사어」, 서울산업대학교 어문집 제43집, p493~501
- 김미선 (2001), 「접속부사의 텍스트언어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박선자 (1983), 「한국어 어찌말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박성민 (2009), 「국어 필수 부사어의 통사·의미론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 배진영 (2012), 「구어와 문어 사용역에 따른 정도부사의 분포와 사용 양상에 대한 연구」, 국제어문 제54집, p 95~140.
- 송현희 (2005), 「탐구 학습 모형을 적용한 국어 지식 영역의 수행평가 방안연구: 중학교 3학년 생활 국어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신지연 (2002), 「국어 구어의 부사 연구」, 인문과학, 제11집, p109~128,
- 이민경 (2007), 「부사어 교육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이승명 (2001), 「부사와 의미 구조」, 한국어 의미학. 8권 p221~240. 한국어의미학회.
- 이신영 (1999), 「초등 학교 아동의 부사어 발달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정원경 (2001), 「문장부사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부 록>

◎ 학습지

1. 아래의 빈칸에 알맞은 부사어를 써 넣어 문장을 확장시켜 보자.

1) 철수는 공부를 하다가 잠이 들었다.

철수는 공부를 하다가 () 잠이 들었다.

2) 철수는 나에게 시비를 걸었다.

철수는 () 나에게 시비를 () 걸었다.

2. 아래의 빈 칸에 알맞은 부사어를 넣어 풍성한 문장을 만들어보자.

토끼는 별주부와 () 물가로 () 내려와 별주부의 등에 () 올라탔었다. 그리고는 두 눈을 () 감았다. (), 몸이 () 뜨는가 싶더니만 () 바다 속으로 () 빠져들었다. 눈을 () 떠 보니 오색구름이 궁궐을 () 휘감고 있었는데, 문 위에는 ‘북해 용궁’이란 현판이 () 걸려 있었다. 용궁 문 앞에는 많은 줄개들이 () 늘어서 있었다.

3. 밑줄 친 부사어를 다른 부사어로 고쳐보자.

1. 밑줄 친 부사어를 의성어/의태어로 고쳐보자.

(1) 예쁜 인형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다.

↓

예쁜 인형들이 () 진열되어 있다

(2) 쉬는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었다.

↓

쉬는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 떠들었다.

2. 부사를 부사절로 바꾸어보자.

(1) 철수는 학교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다.



철수는 학교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 뛰었다.

(2) 영수는 돈을 (너무 많이) 쓴다.



영수는 돈을 () 쓴다.

3. 빈 칸에 들어갈 수 있는 부사어를 보기에서 골라 써 넣어보자.

<보기>

자주, 방금, 확실히, 아주, 정말, 매우, 방금, 급히, 늘, 대개

1. 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 부사어들을 골라 써 넣어보자.

그는 간식을 _____ 먹었다.

2.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는 부사어들을 골라 써 넣어보자.

아이들은 _____ 순진하다.

3. 동사, 형용사 모두를 수식할 수 있는 부사어들을 골라 써 넣어보자.

(1) 학교 앞의 떡볶이 집은 _____ 맛있다.

그녀의 강아지는 _____ 잔다.

(2) 우리 반 친구들은 _____ 노래를 잘 부른다.

반장들은 _____ 똑똑하다.

4. 부사어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을 정리하여 보자.

(1) 부사어는 문장을 _____

(2) 부사어는 문장을 _____

(3) 부사어는 문장을 _____